

2023. 7. 18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

기후환경정책과장	김정선	2133-3510
환경협치팀장	김형희	2133-3528
담 당 자	강동훈	2133-3531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://서울에너지플러스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서울시, 서울에너지플러스와 취약계층에 냉방물품·전기요금 등 지원

- 5월부터 노숙인, 쪽방촌 등 12,600여 가구에 1억 5,300만원 상당 물품 선제 지원
- 폭염 대비 생수, 여름의류, 선풍기, 서큘레이터, 안전 멀티탭·쿨키트 등 제공
- (주)GS에너지, 현대건설(주) 후원으로 수도·도시가스·전기요금 최대 10만원 지급 예정
- 서울에너지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자전송, 에코마일리지 기부 참여 가능

- 서울시와 서울에너지플러스(구.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)는 폭염 위험에 노출된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·단체·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, 서울시 보조사업자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.
 -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지난 2월~4월 간 시민 공모 및 서울시 시민 투표(엠보팅)를 거쳐 '서울에너지플러스'(<http://서울에너지플러스.kr>)로 명칭을 변경했다.
- 서울에너지플러스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 기업, 단체, 시민의 기부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는 '선선(善善)한 서울' 모금

사업을 진행해왔으며, 올해도 5월부터 거리 노숙인, 쪽방촌 거주자 등 12,600여 가구에 1억 5,300만원 상당의 폭염 대비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.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, 어르신에는 선풍기, 서큘레이터, 여름 이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거리 노숙인에 생수 5만병, 취약계층 아동에 여름의류 5,103장, 쪽방촌 거주자에 안전 멀티탭 2,000개, 자원재생 활동가(폐지수집 어르신)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청소과, 복지과에 안전 쿨키트(쿨타올, 쿨토시, 작업용 안전조끼) 1,200개를 지원했다.

□ 또한 (주)GS에너지, 현대건설(주)의 후원으로 서울시 에너지 취약가구 280가구에 수도, 도시가스, 전기요금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수도, 도시가스, 전기요금을 합산해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, 각 구청, 동주민센터 등에서 7월 21일(금)까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심의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8월경 지원할 계획이다.

※ 후원처에 따라 연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
□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계좌이체(우리은행, 1005-202-596612,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)나 쿼알(QR)코드를 활용해 비대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, 휴대폰 #70795050 문자전송(건당 2천원)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.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(단체, 개인)이라면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.

- 후원문의 서울에너지플러스(02-2021-1750, 1751, 1771, 1772)